

광주여대, 독거노인에 '훈훈한 밥상' 도시락 봉사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간호학과가 12일 독거노인을 위한 '훈훈한 밥상' 도시락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행사는 간호학과 봉사 동아리 로타렉트와 원불교 봉공회가 함께 했으며 금호사회복지관을 통해 독거노인 100명에게 도시락을 전달했다. 로타렉트 동아리 학생들은 독거노인을 위해 매주 도시락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학년 진혜원 학생은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을 드릴 수 있어 감사했다"고 말했다. 송인자 교수는 "동아리 회원들이 노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훈훈한 밥상'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 농협 전남본부와 농촌일손돕기 봉사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와 농협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11일 담양군 수북면에서 농촌일손돕기 합동 봉사활동을 벌였다. (사진)

이날 봉사활동에는 광주대 재학생과 교직원 38명이 참여했으며, 영농지원 확대식과 진우진 총학생회장의 결의서 낭독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 의지를 다진 뒤, 수북면 양파밭 현장에서 잡초 제거 등 환경정화에 일손을 보탰다. 박종탁 농협전남본부장은 "봉사활동에 참여한 광주대 교직원 및 재학생에게 감사하다. 찾아가는 농촌복지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열악한 농촌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북·서예에 빠져 '고수 대회' 창설 해남 출신 천희두 의사협 고문 별세



북·서예에 빠져 '고수(鼓手)대회'를 창설한 해남 출신 천희두 대한의사협회 고문이 11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1936년 해남에서 태어난 고인은 광주 서중, 전남대 의대를 나왔으며 근 북부 중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다. 전주직실자 병원장을 거쳐 1976년 전주에서 천희두 외과의원을 운영한 그는 전주종합병원 의료원장, 1994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회장,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1967년 무렵 판소리에 빠져 전북도립 전주병원에 근무할 때부터 국악인들을 초빙해 국악을 배웠던 그는 고수 등용문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지인들과 함께 1981년 '전국고수대회'를 창설했으며 대회는 올해 44회를 맞았다. '아찌서 판소리인가', '피떡거리는 지나래소리' 등 판소리 관련 저서를 남겼으며 외과의로서 인체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갑골문에도 빠져 '갑골문 월(월)자에 대한 연구' 같은 논문을 쓰기도 했다. /연합뉴스

문화예술위원회·콘진원 합동 갑질예방 교육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최근 콘진원 나주본원 빛가람홀에서 양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합동 갑질예방 및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및 청렴교육 전문 강사인 콘진원 전문 상담가가 강사로 나서 갑질의 개념과 실제 인정·불인정 사례, 갑질 신고 및 처리 방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대해 강연했다. 특히 그는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솔선수범과 수평적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동강대, 장애인 맞춤 재활 프로그램 진행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 작업치료과가 광주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진)

작업치료과는 지난 3월부터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와 손 기능 평가 등을 실시하며 일상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맞춤형 재활 활동을 돕고 있다. 작업치료과 박영지 교수는 "장애인 뿐 아니라 어르신들의 편안한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임공과 나주 등 요양원에서 인지기능 평가를 활용한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KT·조선대, 외국인 유학생 정착 지원



KT 전남전북광역본부(본부장 지정용 전무)와 조선대학교가 12일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조기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 김진철 KT 전남전북고객본부장, 조선대학교 김춘성 총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 초기에 겪는 통신 서비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무선이동통신 개통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인체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TV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두근두근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SBS 뉴스 10 2024 마스터스 골프 FR
0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세 번째 결혼(재)	
08	25 아침마당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생방송 오늘 아침	05 모닝와이드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2024 목표 대한명품 특산물 직거래박람회
09	30 KBS 뉴스	20 피도 눈물도 없이(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0 닥터 365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인간극장 스페셜	45 뽀뽀보 좋아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5 불편해도 관참어(재) 10 TV쇼 진품명품(재)	00 역사 한 번 잡합시다(재)	15 헬로킴지 공학교실(재) 30 토닥토닥 꼬꼬 새로운 탐험	00 구라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이 맛에 산다	00 SBS 12뉴스 20 민방 네트워크 뉴스 40 2024 한국민영방송대상 우수상 수상식
0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캐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25 헬로킴지 신비한 자연교실 3(재) 55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02	00 KBS 뉴스 10 전국을 달린다(재) 35 남도지오그래피(재)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03		00 KBS 뉴스타임 15 인앤(재) 30 TV 유치원(재)	55 기분 좋은 날(재)	
04	00 사사건건	00 스튜디오 K	55 5 MBC 뉴스	00 2024 한국민영방송대상 최우수상 수상식 <미역>
0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10 세상의 모든 다큐	1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06	00 6시 내 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0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우기	00 피도 눈물도 없이	05 세 번째 결혼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08	30 수지맞은 우리	30 월드 24 55 개는 훌륭하다		30 KBC 8 뉴스
09	00 KBS 뉴스 9		00 도망쳐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KBS 뉴스라인W	10 역사 한 번 잡합시다	1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10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
11	35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20 아이 러브 스포츠 45 김이나의 비인칭시점(재)	55 스포츠 매거진	50 도시락 스페셜
12	45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재)	45 KBS 재난방송센터(재)	35 구해줘! 홈즈 스페셜	50 네모세모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09:40 숲이 그린 집	16:55 슈퍼왕스 일렉트릭 히어로즈(재)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재)	17:10 명탐정 피트4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드래곤 길들이기: 아홉 왕국의 전설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10 EBS 뉴스
07:00 미스터리아	12:00 EBS 뉴스 12	18:30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
07:15 빅 블루	12:10 극한직업	19:20 고향민국
07:30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광준빈의 세계 기사식당
07:45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중국 삼국지 로드 적벽대전 -조조가 내려온다>
08:00 당동맹 유치원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21:30 한국기행 <고수의 불밥상 1부 맛의 고수가 산다, 우도>
08:20 한글용사 아이야	15:15 클래스 e	21:50 EBS 다큐프라임
08:35 슈퍼왕스 일렉트릭 히어로즈	15:55 블럭스	22:50 인간과 바다
08:50 도레미 프렌즈	16:10 당동맹 유치원(재)	
09:00 뒤죽박죽섬의 빅포패밀리 쇼츠	16:30 페퍼 피그	
09:05 엄마 까투리	16:40 마사와 곰	
09:20 미리 기본 대학	16:50 도레미 프렌즈 쇼츠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5일(음 3월 7일 己酉)

子 36년생 변화를 예고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터지겠다. 48년생 두고두고 가슴에 남을 만한 일을 겪으리라. 60년생 예견된다면 피하는 것이 안전하며 지극히 현명하다. 72년생 마음먹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국면으로 이끌 수도 있느니라. 84년생 가까운 이와 함께 하면서 가닥이 잡히겠다. 96년생 격에 맞아야만 쓸모 있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43, 59	午 42년생 아무런 일도 없이 조용히 넘어갈 것이니 노파심은 버려도 된다. 54년생 불균형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보일 것이니 속히 바로 잡아라 한다. 66년생 맹목적인 판단을 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속출할 수도 있음을 알아. 78년생 재물이 생기는 기쁨이 있다. 90년생 막연히 추측하면 곤란하다. 02년생 사실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 줘라. 행운의 숫자 : 05, 88
丑 37년생 기존의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보인다. 49년생 진행 방향은 다르지만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 61년생 상황이 변하면 대처 방안도 달라질 수밖에 없느니라. 73년생 계획했던 일이 드디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85년생 갑자기 앞질러 나가려는 이가 있을 것이다. 97년생 그나마 더운갑이 할 정도는 되겠다. 행운의 숫자 : 14, 83	未 43년생 사실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대응하라. 55년생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67년생 작은 현상을 무시하면 큰 화를 당하리라. 79년생 북이 흥으로 변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91년생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좌충우돌할 것이 뻔하다. 03년생 굳이 앞서 갈 필요 없으니 서두르지 말라. 행운의 숫자 : 02, 87
寅 38년생 시각적으로 쉽게 현혹될 수도 있느니라. 50년생 객관적 타당성만이 소기의 성과를 낳으리라. 62년생 정밀함과 구체성은 대국을 이루는 요체로 작용한다. 74년생 확실한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 86년생 절대로 시련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98년생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3, 94	申 44년생 자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가 보인다. 56년생 인과응보의 원리로써 사필귀정하리라. 68년생 가까스로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이다. 80년생 스트레스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하겠다. 92년생 학수고대하여 왔던 것이 실마리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04년생 내면의 실속뿐만 아니라 형식과 외형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 행운의 숫자 : 44, 90
卯 39년생 초심을 잃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성부의 관건이다. 51년생 전환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질 것이다. 63년생 상호 관계 때문에 손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 75년생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이 가장 무난하리라. 87년생 제반 사정을 차차하고 일에 몰두하는 것이 옳다. 99년생 생활에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0, 82	酉 45년생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상황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57년생 먼저 논의되어야만 비난을 받지 않는 법이다. 69년생 적극적으로 타계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81년생 당면 과제를 소홀히 한다면 힘들어질 것이다. 93년생 유동적 가변성을 인식해야 하리라. 05년생 무릎을 치면서 깨닫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47, 60
辰 40년생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이를 감안하고 처리만 잘 한다면 결실로 이어진다. 52년생 처음에는 고통스러우나 나중에 편안하리라. 64년생 본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결과에 이른다. 76년생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찬스를 놓치게 된다. 88년생 굳이 나갈 필요까지는 없다. 00년생 변통할 여지가 없이 외곽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45, 77	戌 46년생 약간만 신경 쓴다면 결실을 거둘 수 있으리라. 58년생 한데 모여야 비로소 갖추어질 것이다. 70년생 과거에 묻어 두었던 비밀들의 실체가 사살로 드러나는 형세를 이룰 것이다. 82년생 지리멸렬한 소강상태의 기간을 지나서 활성화되리라. 94년생 땅이 꺼지게 한숨 쉴 일이 생긴다. 06년생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32, 98
巳 41년생 길조가 시원스럽게 내리 뻗는다. 53년생 조처하자마자 절실히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65년생 이치에 맞지 않으면 속히 거두어들이는 것이 백번 낫다. 77년생 상응하는 관계 속에서 풀출하는 성향이 주의해야 한다. 89년생 손꼽아 기다릴 일이 생길 것이다. 01년생 전반적이며 혁신적으로 개편되는 마당이다. 행운의 숫자 : 16, 95	亥 47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법이다. 47년생 각양각색으로 천차만별하니 참으로 현명하겠다. 59년생 근원인부터 정확히 찾아내야겠다. 71년생 깔끔하게 보완한다면 완전한 구도가 달라지리라. 83년생 성과 없이 유두무미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95년생 부족함을 자기 발전의 동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13, 70